

기획특집  
778



# 프린터 강국 한국의 면모 과시, 프린터의 개발과 수출 본격화

국내 레이저 프린터 시장의 동향 및 전망

지난해 레이저 프린터 시장은 41만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2004년 레이저 프린터 시장은 컬러레이저 프린터의 약진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다소 성장이 예상된다. 전세계적으로 프린터 시장의 열기는 매우 뜨거운 가운데 올해 국내 프린터 시장은 국내 시장을 주목하는 외국기업과 국내의 프린터 업체간의 이합집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해에 이어 금년도 보급형 레이저 프린터가 레이저 프린터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위축된 중고가의 레이저프린터 시장에서는 단연 컬러 레이저 프린터의 약진이 예상된다. 특히 시장의 변화에 따라 업체들의 구조개편 및 전략 변화로 올해는 매우 변화가 많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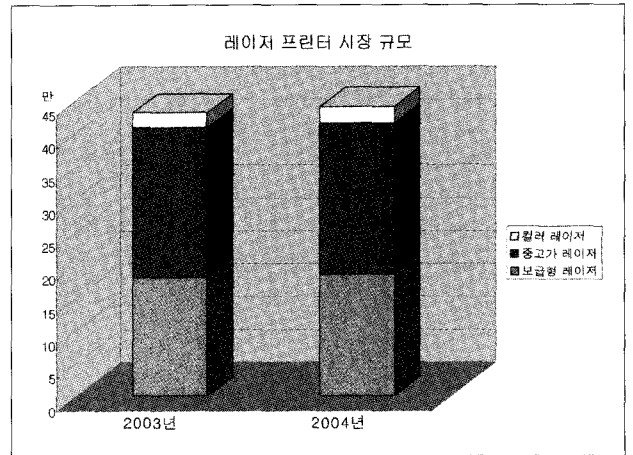
편집자 주

일부 특정한 시장에서는 성장이 기대되지만 전반적인 구매력 약화로 상반기의 레이저프린터 시장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상 상반기의 시장 규모가 하반기보다 큰 경우를 감안하면 올해의 성장률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4년의 레이저 프린터 시장은 컬러레이저 프린터의 약진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다소 성장이 예상된다.

시장의 특징이라면 레이저 프린터의 신제품 출시 간격이 매우 짧아졌다. 예전의 프린터는 PC를 몇 차례 바꾸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제 역할을 하는 터춧대감이었으나, 이젠보다 빠르고 경제적인 제품으로 변동하는 주변기기로 변모하였다. 제품 가격의 지속적인 인하와 시간에 대한 경제적인 개념이 보다 확산되면서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또한 특이할 만한 움직임은 올해 신도리코가 SRP(Sindoricoh Return Program)를 실시하면서 고객의 폐 소모품을 회수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프린터에 실시하고 있던 회수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신도리코의 SRP 프로그램은 실시 후 초기부터 고객 및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HP와 삼성도 이와 유사한 회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각사의 폐 소모품 회수 프로그램은 날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 보여진다. 친 환경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에 따라 환경마크를 받는 제품도 올해 급격하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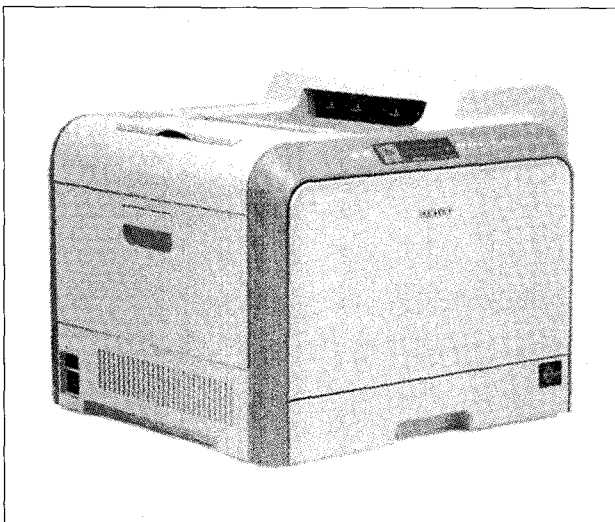


▶레이저 프린터 시장 규모

## 프린터 업체 구도 개편

전 세계적으로 프린터 시장의 열기는 매우 뜨겁다. DELL이 프린터 사업 강화 발표 이후 HP와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국내 시장을 주목하는 외국 기업과 국내의 프린터 업체간의 이합집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레이저 프린터 Major 3사의 움직임만 봐도 이 흐름을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컬러 레이저 시장 및 High End로의 시장 확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개발한 컬러 레이저 프린터를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운영하여 시장의 수요 흡수에 나섰다, 일본의 후지제록스와의 업무 공조를 통해 High End 시장의 진입을 꾀하고 있다. HP는 그간 취약했던 관수 시장공략을 위해 국내 소규모 업체를 통한 관수 공급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무서운 상승세의 신도리코는 금년 초 미국 렉스마크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다양한 솔루션으로 시장을 공

략하고 있다. 이렇게 Major 3사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그 밖의 프린터 업체들도 다른 업체와의 업무 제휴 및 특화시장 개발 등으로 국내 프린터 시장은 가장 뜨거운 여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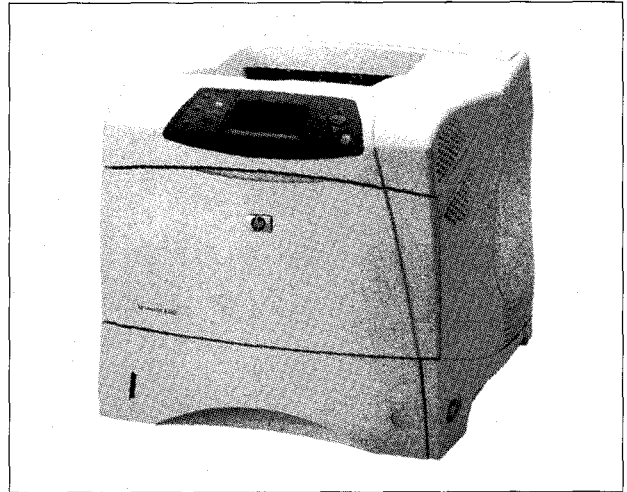
▶CLP-500(삼성 컬러레이저)

## 보급형 레이저 프린터의 시장 주도

지난 해에 이어, 금년도 레이저 프린터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보급형 레이저 프린터이다. 지난 해부터 시작된 보급형 레이저 프린터의 확산은 신도리코의 '블랙풋' 제품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삼성도 이에 맞불로 대응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주도해 가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서는 HP까지 이 시장에 동참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전체 레이저 프린터 시장의 약 70%정도를 차지하는 보급형 레이저 프린터의 시장 판도가 전체시장을 이

기획특집  
174

끝고 있다. 출력 속도도 분당 10매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현재는 분당 20매 수준의 속도로 향상되었다. 하반기 각 사의 신제품도 보급형 제품에 있어서는 출력속도가 20ppm(Pages Per Minutes; 분당 출력 속도) 내외의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구매력 약화에 따라서 제품의 속도 향상 보다는 가격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추세이다. 보급형 레이저 프린터의 가격대가 20만원 이하로 구성되면서 사용자들에게는 구매의 기회가 되고 있다. 신제품 발표 간격이 짧아지면서 치열한 경쟁이 제품 개발의 촉매역할을 한다는 긍정론과 업계의 부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정론이 공존하고 있다. 보급형 레이저 프린터의 시장에는 삼성, 신도리코, HP의 Major 3사와 롯데캐논, 엠손 등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LaserJet 4300(HP-흑백 중고가 레이저)

### 중 고 가 레이저 프린터의 변신

상대적으로 위축된 중고가의 레이저프린터 시장에서는 단연 컬러 레이저 프린터의 약진이 눈에 띈다. 전통적인 4-Cycle 방식(통상 컬러 출력 속도가 흑백 출력 속도의 1/4)과 흑백 및 컬러의 출력 속도가 같은 Tandem 방식의 시장경쟁에서 가격적으로 저렴한 4-Cycle 방식이 앞서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컬러 레이저 프린터 시장의 확산은 삼성 컬러레이저의 공격적인 영업정책에 기인한다. 컬러 레이저 프린터 시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컬러에 강했던 EPSON이나 페이저(제록스)와 후발 주자인 삼성, HP, 신도리코 등으로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상반기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의 확산을 위한 각 사의 마케팅을 돌아보면 보급기에 못지 않은 다양한 기획이 있었다. 흑백 레이저 프린터는 HP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에 신도리코, 청호, 베리텍 등이 동참하고 있다. 보급형과는 기능 및 성능면에서 많은 차이를 지닌 중고가 레이저 프린터는 추가적으로 옵션을 통해 다양한 기능의 구현이 가능하지만 일반기업에서도 보급형 레이저 프린터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특수한 용도의 특수시장이나, DAS(Document Accounting Systems; 문서 관리 시스템) 등의 솔루션과 연동하여 프린터와 솔루션을 같이 제안하는 형태로 변동하고 있다.



▶LP 1800(신도리코-보급형 흑백 레이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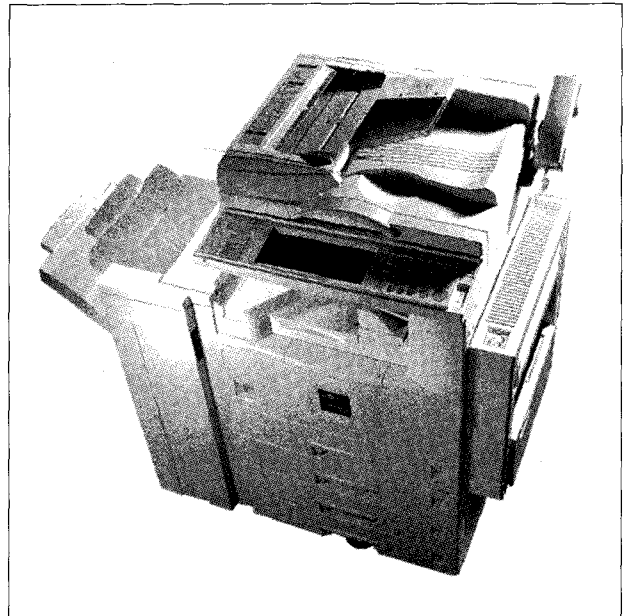
### 하나로 합쳐지는 복사기와 프린터 시장

디지털 복합기 시장에서 먼저 앞서가기 시작한 쪽은 디지털 복사기이다. 신도리코의 'DGwox'는 프린터 키트의 장착물을 이례적으로 높인 제품이다. 전통적인 복사기 회사인 제록스나 롯데캐논도 디지털 복합기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 프린터 회사도 중고가 프린터에 옵션을 통한 복합기능의 제공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 또한 보급형 프린터에 복합기능을 기본 장착한 AIO(All-in-one; 기본적으로 복합기능 제공)의 형태로 복합기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주로 프린터 기반의 AIO는 소규모 사무실을 집중 공

략 시장으로 삼고 있다. 디지털 복합기의 시장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가로 인식되던 제품들이 가격인하를 단행하면서 보다 많은 수요를 일으키고 있다. 이젠 프린터와 복사기의 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져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복합기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문서관리 시스템이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각 사에서는 자사 솔루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시장 변화에 따른 업체들의 구조 개편 및 경쟁심화 예상

시장의 변화에 따라 업체들의 구조 개편 및 전략 변화로 올해는 매우 변화가 많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좋은 제품과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외국 기업들은 국내 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판로 확보에 적극적이다. 일부 기업들은 직접 시장에 뛰어들어 보다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레이저 프린터에서는 시장 점유율 기준 상위 3사의 마케팅 전쟁이 보다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컬러 시장에서의 각 사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이 기반이 되어 시작된 프린터의 개발과 수출이 본격화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삼성과 신도리코에서 국내 기술로 생산되어 수출되는 제품의 수량으로 보면 이미 대한민국은 프린터 강국이다.



▶DGwox 1033 (신도리코 - 디지털 복합기)

#### 노상균

(주)신도리코 프린팅솔루션영업부  
영업지원팀 대리